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응 스님과 운영위원 도계 스님이 병원에 입원 중인 남연 스님을 찾아 의료비를 전달했다.

"병상 벗어나 수행생활 이어가길"

빛고을나눔나무, 입원 중인 스님 의료비 지원

병환으로 치료 중인 스님에게 불교계의 의료지원금이 전달돼 화제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6월 8일 전남대병원 응급병동에서 치료 중인 남연 스님(70)을 찾아 '제3차 의료비지원 승보공양' 을 진행하고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승보공양을 받은 남연 스님은 지난달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돼 관상동맥 성형술과 지속적인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오던 터라 위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응 스님과 운영위원 도계 스님 등이 참여한 승보공양은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스님들에게 전달되는 기금으로 매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보응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스님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스님의 빠른 회복과 노후 편안한 수행생활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홍법사서 열린 재가 하안거 입재법회에 참여한 대중이 치열한 수행을 다짐하고 있다.

"불교 지키는 힘은 오직 수행"

조계종부산聯, 재가하안거 입재… 8월 10일까지

성숙한 수행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재가자 수행 안거가 시작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6월 7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무술년 재가 하안거 입재법회' 를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관 스님, 회원 스님들과 양재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 및 재가자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재가 하안거 입재식에 앞서 재가자들은 금강경 독송과 참선으로 정진했으며, 이어 입재식은 △발원문 △보현행원 △축사 △인사말 △재가 안거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심산 스님은 "재가 수행의 힘이 한국불교의 원동력 될 것"이라며 "한국불교를 지켜나가는 힘은 바로 여기 재가자들의 신심과 신행이 있기에 가능하다. 부산 불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가 하안거는 6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올해 재가 하안거는 홍법사를 비롯해 대광명사, 원오사 등 26개 사찰서 1500여 명의 재가자들이 동참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세기 떠돌던 진신사리의 환지본처

울산 내원암, 6월 10일 진신사리 이운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도굴범에 의해 훼손당하고 전국을 헤맸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원래 자리인 울산 대운산 내원암으로 돌아왔다.

울산 대운산 내원암(주지 진응)은 6월 10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를 내원암 일대 및 경내에서 봉행했다.

먼저 이운행렬은 내원암 계곡 마당바위에서 석가모니불 정근에 발맞춰 출발했다. 진신사리 앞에서 대중은 꽃을 뿌리고 향과 만장을 들고서 진신사리 이운을 장엄했다. 이운행렬이 내원암 앞에 있는 500년 된 괭나무 옆 마당에 도착하자, 불자들은 육법공양으로 찬탄하고 스님들의 헌공이 이어졌다. 헌공식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위로하는 김유경 명창의 판소리 공연도 열렸다.

주지 진응 스님은 "진신사리는 도굴범들에게 훼손돼 이러 저리 떠돌다 차디찬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온전한 몸도 아닌 쪼개진 채로 보관돼 왔다"며 "오늘 이렇게 환지본처 한 목마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가슴 아픈 역사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곧이어 대웅전으로 옮겨진 진신사리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이운에 대한 참의미를 찾는 법회가 봉행됐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든 이를 평등하게 대하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계를 지킨 부처님의 삶이 곧 사리"라며 "부처님의 삶이자 정신의 결정체를 이렇게 진신사리로 만나게 됐으니 더욱 기쁜 일"이라고 설법했다.

마지막으로 관음전에 조성된 유리함에 사리가 안치되자 대중은 사리 친견을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중은 장미꽃 한 송이씩을 진신사리 앞에 헌공하고 합장하며 유리관 앞에 서서 진신사리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장엄

도굴범 훼손, 박물관서 찾아

친견 후 사리탑 조성 계획

"부처님 삶이 곧 진신사리"

진신사리를 친견하며 환희심으로 물든 불자들은 법회 전부터 내원암을 찾아 숙식을 해결하고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유숙희(인천 동탄 · 58) 불자는 "사리 이운 소식을 미리 듣고 3일 전에 이곳 멀리 내원암에 내려왔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했고, 내원암 도량도 정말 아름다워서 감탄했다. 특히 이번 사리 이운은 불교의 경사"라고 말했다.

노재범(경남 거제 · 54) 불자는 "어제 먼저 내려와 수행에도 동참하고 봉사도 하며 기다렸다. 부처님 사리가 돌아오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대단한 영광"이라며 "내원암 신도는 아니지만 미리 내려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기뻐했다.

내원암 진신사리는 내원사 본사였던 대원사 옛터 석탑에서 1950년대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경주국립박물관이 구입해 소장하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통해 55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

주지 진응 스님은 "도굴꾼이 훼손하는 등 슬픈 사연이 많은 진신사리이지만 제자리로 모셔올 수 있어 다행이다. 오늘 법회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고 바른 불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이운법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여러 전문가들과 통도사 어른스님들의 뜻을 물어 바른 자리에 사리탑을 조성하고 사리를 모실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운법회에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울산사암연합회 남현 스님, 통도사 도감 도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반세기만에 울산 대운사 내원암 부처님 진신사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6월 10일 봉행된 이운법회서 사부대중이 진신사리를 이운하는 모습.

호국위령 20년 "보훈가족은 내 가족"

부산 진여원, 6월 8일 20회 호국영령 위령재

부산 북구 진여원이 20년 동안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와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있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8일 부산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제20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했다.

진여원은 행사뿐 아니라 호국영령 위패 432위를 법당에 봉안해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매년 보훈가족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년 동안 전달한 장학금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장학금은 남보타월 원장과 불자들이 진여원에 봉축등을 달아 함께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인 호국영령 위령재로 시작해 2부 추모식과 3부 작은 음악회 순으로 이어졌다.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 등이 6월 8일 열린 위령재에서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있다.

추모식은 스님 및 내빈 그리고 보훈가족의 왕생극락 기원등 달기로 시작해 △헌화 및 분향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왕생극락 발원문 △경과보고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 △인사말 및 추모사 △추모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 20년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함께해준 진여원 회원과 보훈가족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끌 수 있었다"며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행사에는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 남보타월 원장, 보훈가족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 심성 다루는 불자교사들의 다짐

부산교원불자회 21주년 법회

불자교직원들이 청소년의 마음에 부처님의 보리심을 심는 어른으로 거듭나길 발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는 6월 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창립 21주년을 맞아 특별 법회를 봉행하고, 청소년을 위한 참된 교원불자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법회는 입재식 후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특별초청한 주석 스님(송정 대운사 주지)의 법문도 이어졌다.

법회에는 김상만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김경희 부산교사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김경희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자 애써왔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창립정신을 다시 한 번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

우울, 불안, 분노 정서 다스림 트라우마 치유
희로애락명상 죽음명상
자비명상 알아차림명상 통찰명상

화합 쉼 조화 용기 기쁨 여유 감사 평화 자유 이완 공감 응원 나눔 배려 자비 평온 친절 여유 사랑 용서

부부, 가족 관계 문제해결
중독, 진로, 개인상담
그림, 소리, 빛, 영화 치유 명상

한국불교의 새희망!
힐링멘토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 마음트레이너 교육과정 모집
■ 마음충전소 전국지사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현성정사 자비명상마음충전센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라길 30 현성정사 | 문의 02-3216-5405 | www.jurira.org